

brilliant memories: artwork by 한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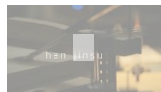
네 개의 문



Flying · DOOR Clock

조각을 전공한 한진수의 작업은 간혹 어린아이들의 장난처럼 사소하고 무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는 상관없는 잡다한 사물들을 가져다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적당히 쌓아놓거나,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키네틱 작업도 했습니다. 또한, 비누 거품이나 동물의 깃털 등 낯선 재료들을 작업에 적극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한진수의 작업은 조각적인 형태에 매우 충실하면서도, 자신의 예술적 행위가 때론 하찮고 사사로운 것임을 농담처럼 밝히곤 합니다. 그는 이번 브릴리언트 메모리즈 프로젝트를 통해서, 쏘나타 EF 자동차에서 네 개의 문을 떼어내 그것으로 움직이는 장난감처럼 보이는 나비 형태의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어린 시절의 친구들과 떠났던 첫 자동차 여행을 추억한다는 사연에, 작가는 망설임 없이 동심을 회상할 수 있는 모티브로 장난감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네 개의 자동차 문을 이용해서 만든 나비는 관객의 움직임을 포착해 자신의 날개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한진수의 <Flying>은 그동안의 작업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무겁지 않은 시각적 유쾌함과 결코 가볍지만도 않은 유의미한 농담을 적당히 뒤섞습니다. 나비의 날개처럼 끊임없이 열렸다 닫히는 기억의 관문()들은 현실 세계에 나 있는 일종의 구멍처럼 예기치 않은 순간에도 문득문득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곤 합니다. 그것은 유년시절의 손 때 문은 장난감처럼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다가가면 열렸다 닫히는 그 자동문 틈 사이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기억의 파편들이 새어 나오면서, 과거를 추억하는 이에게 그것은 낯익은 유년시절의 장난감처럼 묘한 향수를 갖게 할 것입니다. 한편 <DOOR clock>은 문의 일부분을 둥글게 도려내서 만든 디지털 시계인데, 그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멈춤 없이 순환하는 기억의 메커니즘을 표상합니다. 그 시계는 여느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대를 수없이 반복하지만, 한 개인에게 있어서 친구들과의 유년시절과 스무 살의 자동차 여행,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미래의 기억까지 간직하는 영원한 시간성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글 · 안소연



[brilliant memories] 작가 한진수 인터뷰 & 메이킹

사연 소개



스무 살이 되던 해, 저는 제일 먼저 면허를 땀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온 동네 친구들과 함께 꿈에 그리던 동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들의 본격적인 자동차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방학 때만 되면 국내 곳곳을 함께 다녔지요. 늦은 밤에 길을 헤매다 결국 차 안에서 잠들기도 하고, 음악을 틀어놓고 함께 마음껏 노래도 부르던 우리만의 아지트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하나둘 결혼하게 되면서 여행의 기회를 줄어들이고, 아버지의 쓰나타도 어느덧 그 힘을 다한 채 점점 내 손길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20대의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이 녀석을 영원히 붙잡아 둘 수는 없을까요.

작가 한진수



작가 인터뷰

사연은 저에게 강통 장난감 시절과 같은 옛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사연이 마치 저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네 명과 네 개의 문짝이라는 단순한 생각은 사뭇 어리숙하면서도, 어쩌면 그들의 관계의 단순함을 설명해 줄 수도 있는 아이디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에는 선택과 신중함이 없을 정도로 믿음이 전제되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징이 형식과 형태에 우선하듯, 사실 우정의 깊은 맛은 단순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친구의 우정과 차에 대한 애정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프로필

움직임을 이용한 키네틱 아트로 알려진 설치작가 한진수는 홍익대학교 조소과를 전공하고 동 대학원 및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를 졸업하였습니다. 최근 베이징의 포스 갤러리에서 <The Hive>와 싱가포르의 레이스의 <Under the Full Moon> 등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예술의 전당, 서울시립미술관, 성곡미술관 등 다수의 미술관과 해외전시 경력도 있습니다.